

OECD DAC 동료학습(Peer Learning) 소개

1. 도입 배경 및 개요

- ☐ 특정 주제에 대한 DAC 회원국간 상호 학습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4년 12월 동료학습(Peer Learning) 실시 결정
 - (학습주제) 민간부문 개발협력(1차)과 상호책임무성(2차)
 - ※ 환경, 거버넌스, 취약국 등의 주제에 대한 동료학습 시행 여부 검토중
 - (학습방식) 대상국별 해당 주제에 대한 문헌조사, 방문 및 인터뷰 등 진행
 - (결과공유) 2016년 말 OECD 사무국에서 동료학습 종합보고서 발간 예정
 - (향후계획) 2017년 동료학습은 DAC 예산 편성 이후 논의 예정
 - ※ (비교) 동료검토(Peer Review) : 모든 DAC 회원국은 4~5년에 1회씩 타 회원국 (2개국) 및 OECD DAC 평가팀에 의해 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DAC 지침 및 권고안 등의 이행여부를 검토받고 있음
- ☐ 2015~16년간 스웨덴, 네덜란드, 독일, 미국 등 4개국 대상 1차 주제에 대한 동료학습 실시 (2차 주제에 대한 동료학습 일정은 미정)
 - ※ 당행은 2016년 독일 동료학습 참여 (OECD 대표부 EDCF 주재원 참가)
 - 민간부문 개발협력 중 특히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ODA와 민간재원의 혼합에 관련된 활동 및 경험 공유
- ☐ 동료학습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워크숍 별도 개최
 - 2016년 상반기에 민간부문 개발협력을 위한 ① 혁신적 수단(덴마크, 2월)과 ② 추가성(룩셈부르크, 4월) 주제에 대한 워크숍 실시

2. 2016년도 독일 동료학습(Peer Learning) 실시 내용 요약

- 2016년 2월 21~26일간 독일의 민간부문 개발협력 활동 경험 공유
 - 한국(EDCF), 네덜란드, 룩셈부르크, OECD 사무국 관계자 및 외부 컨설턴트 참여
- BMZ(경제협력개발부)는 개도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국 기업의 비즈니스 중 개도국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원(역량개발, 기술 이전 등)
 - (지원방식) 민간부문과의 협력(PSE)* 프로그램 방식 사용
 - * Private Sector Engagement : 개발협력 활동에 공여국 자국기업 및 개도국 민간부문 함께 참여
- (PSE 5대 수단) 네트워크 활동, 기업 대상 컨설팅 및 F/S 지원, 지식전수, DeveloPPP.de, 위험완화(ECA와 협력)
 - (DeveloPPP.de) 자국 기업이 개도국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(개도국 인적자원 역량강화 등)에 대해 무상 자금 지원
 - GIZ(국제협력유한회사), DEG(투자개발은행), SEQUA(경제개발 직업훈련유한회사)에서 신청서 접수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자금을 집행
 - 민간기업은 신규 시장 진출 및 신기술 적용 가능성 모색 등의 목적으로 참여
 - 다만, DeveloPPP.de가 민간기업에 대한 보조금 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, BMZ는 ① 최대 지원 금액을 20만 유로, ② 대상기업은 독일 및 EU 기업으로 운영, ③ 기업의 일반 사업자금 지원이 아닌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제한
- (위험완화) Hermes 수출보증 활용
 - 독일 기업의 對개도국 수출에 대한 정부의 수출신용 보증

작성자

선임연구원 임 소 진

2016년도에 시행된 OECD DAC 동료학습(Peer Learning) 및 워크숍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출입은행 'EDCF 이슈페이퍼' 2016년 3호에서 찾아볼 수 있음 (8월 발간 예정)